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23>]한라산에서도 숯 구웠다

제1부 제주식물 세계화 100년<22> -숯가마터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04. 08.25. 00:00:00



▲최근 한라일보 한라산탐사팀은 한라산 중턱 해발 750m 지점에서 원형이 잘 남아있는 숯가마터를 찾았다. 한라산에서의 숯 생산은 천연보호구역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사진=강경민 기자 gmkang@hallailbo.co.kr

1960년대엔 한해 최고 8백톤 생산

한라산 중턱서 숯가마터 원형 확인

생활사 규명 등 제주문화유산 가치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가 일반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나무를 이용한 숯은 가장 중요한 에너지였다. 이른바 목탄(木炭)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숯을 구워왔다. 일반적 용도인 연료용에서부터 취사 난방용, 건조, 탈취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돼왔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는 신라때 민간에서도 숯을 이용해 밥을 지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이는 1995년 경주경마장 부지에서 발굴된 숯가마와 다량의 숯 유물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전문가의 분석 결과 신라 숯의 재료는 참나무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들 숯을 천년왕국 신라를 망하게 한 주범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제철 연료와 가정의 연료로 숯을 만들기 위해 신라의 참나무 숲이 무참히 잘려나가고, 민동산과 가뭄과 배고픔을 가져와 망국에까지 이르렀다는 흥미있는 주장이다.

제주에서도 숯은 유용한 자원이었다. 한라산에서부터 해안마을에 이르기까지 판매·자급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숯이 구워졌다. 제주의 숯생산량은 81년까지 통계에 나타난다. 연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로 대체된 1982년 이후에는 목탄이 거의 생산되지 않았다

제주도지에 따르면 제주의 목탄생산은 지난 81년 32톤으로 마지막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숯, 즉 목탄 생산량 통계는 1957년부터 집계됐다. 1957년 49톤에 1백96만원으로 기록된 것을 시작으로 58년 56톤, 59년 28톤, 이후 1963년에는 8백톤으로 연간 최고기록을 나타냈다. 금액도 1억9천76만원에 이르렀다. 이후 77년 100톤을 기록한 이후부터 계속 감소해 연간 100톤 미만으로 떨어지다가. 화석연료 보급이 자리잡으면서 목탄 생산은 20년여년전 쯤 그 자취를 감췄다.

우리 선조들은 숯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생산했을까. 최근 한라일보 한라산탐사팀은 한라산 중턱 해발 750m 지점에서 원형이 잘 남아있는 숯가마터를 찾았다.

숯가마터는 서귀포와 제주를 잇는 횡단도로인 5·16도로와 인접한 숲에 위치하고 있다. 보통 크기의 이 숯가마터는 거의 원형에 가까운 상태로 발견됨으로써 제주숯가마의 문화적 가치를 조명할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다.

숯을 굽는 가마의 내부와 연기 배출구 및 불을 지피는 아궁이까지 아주 잘 남아 있다. 숯가마는 숲 속의 경사지를 이용하여 땅을 약 1.5m 정도 파낸 다음, 안쪽 내부를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약 110~150cm 높이로 지면까지 돌을 쌓아 올린 형태. 가마의 좌우(장축)는 320cm, 상하(단축)는 280cm 정도이고, 불을 때는 아궁이(입구) 쪽은 폭이 약 90cm 정도 규모. 가마내부의 면적은 약 1.5평 남짓으로 다소 작아 보였다.

지름 3m 내외, 1.5m 깊이로 땅을 판 뒤 계곡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크기의 돌을 이용해 울타리를 만들었고, 불을 지피는 화구와 연기가 배출되는 굴뚝구멍을 가마의 머리부분에 널 만큼 머리를 쓴 과학적인 숯가마다. 그 속에 별목한 나무를 쌓아놓고 흙으로 덮여 불을 때서 나무장작들이 타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을 함께 답사한 제주교대 정광중 교수(인문지리)는 "한가족 단위로 숯을 구웠거나 또는 성인 남성 두 사람 정도가 짊어지고 갈 분량의 숯을 구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숯가마터는

한라산 곳곳에서 보이는데, 이것은 한라산이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상당히 높은 지대까지 벌목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한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숲가마는 한라산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1966년)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197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돌로 견고하게 쌓아서 지금까지 그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 숲가마의 주인인 숲장이들은 해발 700m의 고지대까지 들어와 숲을 구웠던 것으로 비추어 전문적인 숲장이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숲굽는 일은 아무래도 원시적으로 연료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엄청난 면적의 숲이 베어나가고 산림자체를 훼손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숲을 한번 구우려면 상당량의 나무가 벌채됐을 것이고, 그 면적 또한 엄청났을 것이다. 지금은 울창한 숲으로 변했지만 불과 40~50년전에는 한라산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선 숲이 웰빙상품에 속할 정도로 그 효용성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습기를 빨아들이고 나쁜 냄새를 제거하는 효과는 물론 숲으로 구운 고기맛이 좋다는 것은 상식처럼 통한다. 여과 과정에 대나무숲을 이용한 소주가 출시되고 심지어 정신을 맑게 해준다는 숲베개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숲가마터는 과거의 유산에 불과하다고 단정해 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 선인들의 삶과 직결된 문화였음을 간과할 수 없다. 문화유산 가치로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숲가마는 과거로 묻어버릴 수 없는 제주도민들의 생활사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할만 하다. 그리고 에너지 변천에 따른 과거의 문화유산차원에서 귀중한 유적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다.

숲가마터는 우리에게 한라산 식생의 훼손과 복원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숲을 어떻게 구웠고, 어떻게 사용하였으며,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는 어떤 애환이 깃들어 있는지도 생각하게 한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